



10년 만의 중국 - Part 4 지피지기 백전불태

글 : (주)보성 권호재 상무 / kwon7775@bosunggrou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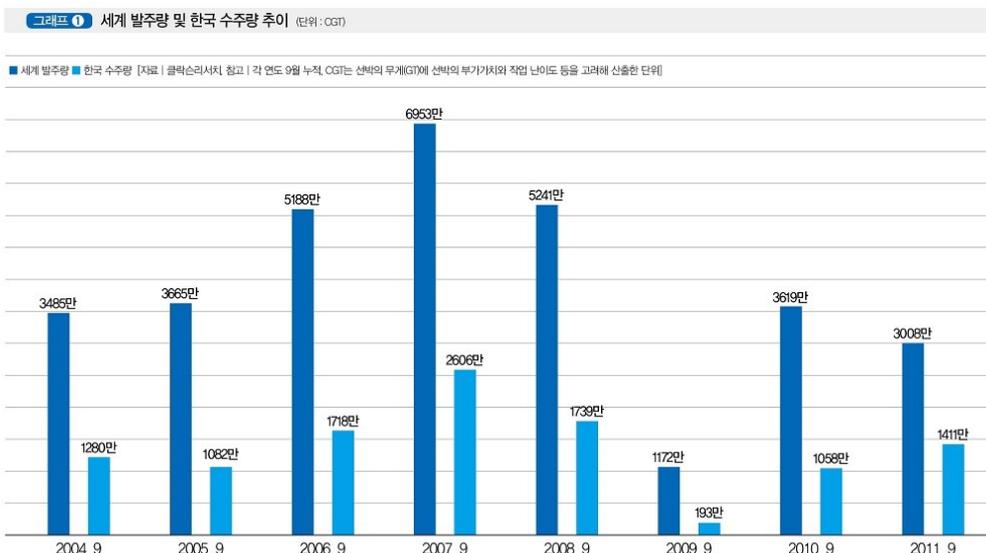
(기업 비밀인 부분은 이니셜을 사용했습니다.)

N 소재 분야의 신생 기업인 C사와의 협력을 위해 10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었다. C사의 공장도 보고 실무진과의 회의 후, 최고 경영진과의 만찬은 출장의 절정이었다. 만찬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C사 임직원들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C사는 중국에서 생산한 저가의 N 소재를 한국에 꽤 오랫동안 팔아왔었다. 이제는 한국에서 C사의 기술을 도입하고 자본을 투자하여 한국에 공장을 짓자고 하니 입장이 바뀐 셈이었다. 만찬장에서 양사 대표가 투자 협약서에 사인을 마쳤다. 우리는 서로 앞으로 잘해보자며 연거푸 술잔을 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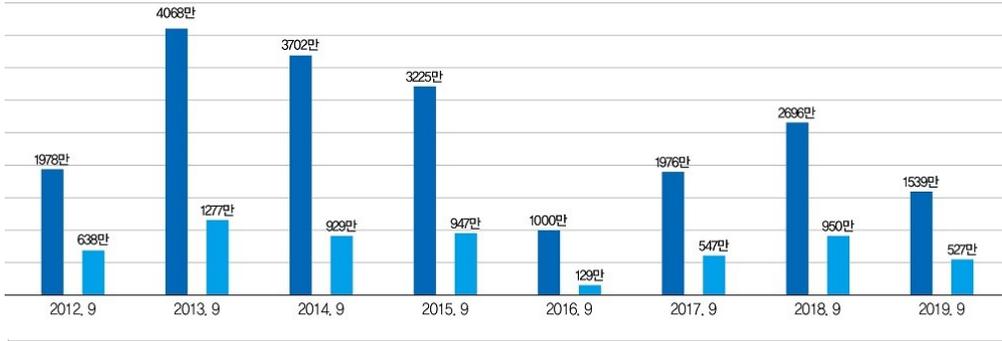
C사의 대표인 Y 선생은 최고급 만찬을 우리에게 대접했다. Y 선생은 차분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C사의 기술진은 N 소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곧 가동될 C사의 중국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밀린 주문을 소화하려면 5년 내 5배로 생산 용량을 늘려야 한다면서 우리와 함께 만찬장에 함께한 C사의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웬지 기시감이 느껴졌다. 2007년 쏟아지는 선박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중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 땅을 보고, 파트너를 찾으면서 실무자로서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찬에 여러 차례 참석했었다. 그때의 만찬장에서 한국 조선소 임원들은 거의 유사한 레퍼토리의 질문들을 받고, 답변했었다. “한국 조선의 기술은 최고입니다. 세계 1위에서 6위까지 조선소는 모두 한국 회사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원가를 결합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주문이 넘쳐서 호황은 앞으로 10년은 갈 겁니다. 우리의 협력 사업은 번창할 것입니다...”

한국 조선의 화려했던 시절은 2013년까지였다. 이후 유가 폭락과 함께 2022년까지 10년 가까이 긴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신조 발주는 줄어들었고, 한중 양쪽에서 대폭 늘린 건조 설비는 모두에게 짐이 되었다. 한국에서 제일 큰 해운사가 2017년에 결국 파산했고, 놀란 은행들은 조선소에 대한 지원을 거두어들였다. 경쟁자인 중국 해운사들과 조선사들은 정부의 저렴한 자금을 무기로 해외 선주들에게 선가의 95% 이상을 대출해 주면서 억지로 버텼다. 자국 정부가 자국 선사를 포기하고, 자국 은행이 자국 조선소를 외면하는 상황과는 매우 달랐다.

해외 선주들 입장에서는 선가도 품질도 기술도 문제가 아니었다. 해운 불황이지만 돈이 있는 선사들은 자금이 있었고, 더 악착같이 굴었다.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최신 사양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자, 배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되었다. 선수금을 최소 20프로는 받아야 한다는 한국 은행과 비록 이자율은 높아도 배 짓는 돈을 대준다는 중국 은행과의 격차는 컸다. 아무리 한국 조선소의 기술이 뛰어나고 품질이 낮고 오랜 관계를 맺고 있어도 돈의 힘 앞에서는 별 소용이 없었다. 악순환은 무서웠다. 해운 경기는 하락하고, 선가는 낮아지고, 배를 지어도 돈을 벌기 어려웠다.



조선 3사 수주실적 (자료: 각 사 참고 자료 2019 9월 누계)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수주 목표	178억 달러	수주 목표	83.7억 달러	수주 목표	78억 달러
	수주 실적	72.6억 달러	수주 실적	29.6억 달러	수주 실적	42억 달러
	달성률	40.8%	달성률	35.4%	달성률	53.8%
	전년 실적	107.8억 달러	전년 실적	45.8억 달러	전년 실적	47억 달러



〈출처: [2004~2019년 조선 업황 따져보니...] 더스쿠프, 2019〉

2016년 한국 조선 3사의 수주량은 2007년 대비 1/20로 줄었다. 그 사이 중국과 한국의 경쟁적인 설비 증설로 선박 건조 능력은 2배 이상 늘었다. 해운사가 망하고, 조선사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다. 수조 원을 투자해서 건설한 STX 대련 조선소가 문을 닫고 공장 설비가 다 뜯겨 나갔다. 한국의 중견 조선소들도 하나둘 무너졌다. 조선소만 어려운 게 아니었다. 선사들도, 에너지 회사들도 모두 어려웠다. 2012년까지 지속된 중국발 붐과 고유가의 숙취는 예상보다 강하고 무서웠다.

척당 6억 불이 넘는 고가의 드릴십들은 조선소에 버려졌다.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진입했던 각종 신사업은 애물단지가 되었다.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했던 뛰어난 인적 자원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조선소를 떠났고 직영과 외주 사이에는 생존게임이 벌어졌다. 2007년을 기점으로 10년도 지나지 않아 모든 게 꿈처럼 사라졌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랐을까? 과잉 공급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이클이 큰 산업이 조선 산업이며, 해운업과 금융 분야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불황기를 이겨내기 힘든 산업이라는 걸 80년대 뼈저리게 겪었는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던 걸까? 중국 조선소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의 낮은 인건비는 우리의 높은 생산성으로 이겨 낼 수 있다고, 선박의 기술과 품질은 그렇게 쉽게 따라 할 수 없을 거라고 일장 연설을 외치던 고참들은 소리소문없이 회사에서 사라졌다. 고참들의 취기 어린 호언장담 이후 맞이하는 현실은 너무 뼈아팠다. 내가 일하던 D사의 신사업 부서는 해체되어 결국 모두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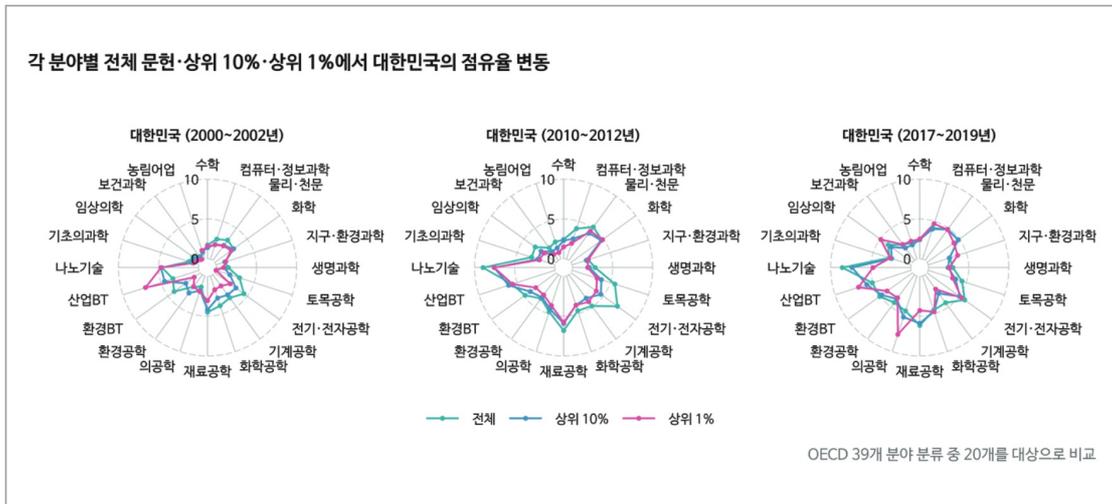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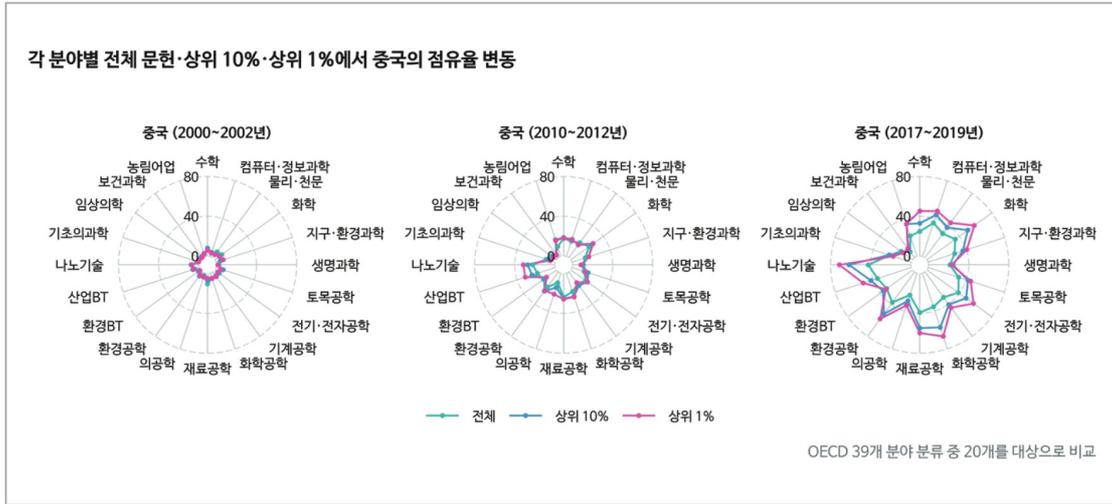
열변을 토하는 Y 선생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신생 회사가 시작부터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공장을 짓는 것은 다소 위험하지 않느냐는 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N 소재 분야가 지난 5년간 주문량이 5배 늘었고 향후 5년간 다시 5배 늘어날 거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속소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불편했다. 10년 사이 시장 규모가 25배 늘어나는 건 분명 대단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공급 능력이 50배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Y 선생이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었다. 어쩌면 이미 새로 도크를 파고, 해외 조선소를 짓고, 대규모 인력을 채용한 이후 미래를 막연히 낙관했던 선배들이 생각났다. 투자를 계속하고 파괴적인 증설 경쟁을 하면서도 막상 상대가 물러서야지. 나는 물러설 수 없다는 심리가 Y 선생의 마음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게 걱정스러웠다. Y 선생은 자신들의 사업의 약점과 경쟁사들의 강점을 그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이미 호랑이 등에 타서 달리기 시작한 이상 딱히 다른 방법도 없어 보였다. 중국의 모든 성과 대도시에서 N 소재에 대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고, 이미 중국 자체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그건 본인과 본인에게 투자한 사람들에게만 손해이기 때문이다.

2007년 조선 경기의 정점에서 과잉 투자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었지만, 다들 알고도 무시했었다. 총론에서는 동의해도 각론에서는 부정했다. 내 회사와 내 조직은 확대하고 남 회사와 남 조직은 축소하거나 유지하라는 이기적인 처방이 판을 쳤었다. 은행들은 앞다투어 자금을 가져다 쓰라고 했고, 유능하고 똑똑한 신입사원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는데, 누가 어두운 미래를 걱정했겠는가? 낙관론은 내리막을 굴러가는 눈 뭉치가 커지듯 스스로 논리를 입증하며 세를 불려갔고, 조심스러운 비판론은 소수의견으로 무시당했었다. 한국 조선업이 겪은 함정과 실패의 메커니즘이 중국의 N 소재 분야에서도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귀국길 내내 떨칠 수 없었다.

95년 대학에서 중국어 강의를 교양 수업으로 들을 때만 해도 중국의 GDP는 독일보다도 작고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단 하나도 없는 크기만 가난한 나라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구매력 기준 GDP로는 세계 1위이며 매년 600만 명의 대졸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대국이 되었다. 과학기술 분야의 거의 모든 학계는 이미 중국인 학자들이 장악했고, 에너지 전환과 AI라는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도 중국의 축적된 힘은 크고 깊다. 바이오와 의학 분야를 제외하면 과학 기술경쟁에서 중국은 미국을 압도하고 있고 우리와는 5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2022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전체 논문 수, 상위 피인용 10%와 1% 기준 소위 우수 논문의 수에서 약 20배 정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같은 기간 2배 정도 확대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더이상 중국은 낮은 원가와 낮은 품질로 그저 그런 물건을 만드는 나라를 지향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기초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과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대등하게 경쟁하는 미국에서도 실제 연구자들의 국적이나 출신을 따져보면 중국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미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를 압도하고 있고 이 영향력은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10년만에 방문한 중국에서 보고 느낀 것은 중국이 글로벌 슈퍼 파워가 확실히 되었다는 점과 함께 조선산업 슈퍼 파워였던 우리나라가 겪었던 실수를 이들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낙관론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텅 빈 아파트 단지들이 수없이 넘쳐나고, 매년 쏟아지는 600만명의 대졸자 중 제대로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절반 정도에 그쳐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내가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은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경기 변동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출처: [글로벌 미중 과학기술경쟁 지형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2〉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당에게 강요받은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14억 인구가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당과 1인의 영도자 이외에는 다른 정치적 대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회에서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지극히 불리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자기 가족과 더 나아가 중화 인민의 번영이라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미래 비전이 24 시간 미디어에서 넘쳐나는 세상에서, 미국을 추격하고 극복하자는 경쟁심 이외에 14억 인구를 묶어줄 테마와 스토리도 부족해 보였다. 이성적인 토론이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1인의 영도자부터 버린 마당에 14억 인구 모두가 경제적 성공과 돈으로 미래를 보장 받고자 하는 깊은 불안감을 가슴 깊이 묻어 두고 있었다. 할아버지 세대는 문화대혁명을 겪으며 개혁개방과 산업화의 거친 시대를 살았고, 아버지 세대는 배금주의에 찌들어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지만, 중국의 청년 세대들은 많이 달라 보였다. 그들은 각자 조부모 4명과 부모 2명으로부터 사랑과 지원을 넘치도록 받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무섭도록 치열한 경쟁에서 이미 지치고 소진되어 보였다. 우리나라 이상으로 중국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의 청년들 다수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채 배달일을 하며 스마트폰으로 위안을 찾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되고, 월급은 150만원이 안되는데 집값은 몇 억원이 넘는 현실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 조선업의 화려한 시절도 비슷한 측면이 있었다. 회사는 조단위 이익을 내고 직영 근로자들은 높은 연봉과 보너스를 받았지만, 생산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외주 하청 근로자들은 그 과실을 다 누리지 못했다. 숫자로 나타나는 압도적인 규모와 역사, 기술과 품질, 탄탄한 재무적 성과 아래 숨어있는 취약점을 정말 우리는 몰랐을까? 아무리 비싸고 복잡한 선박과 해양플랜트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도면대로 성실하게 시공하고, 현장에서 끈기있게 그날의 작업량을 채우는 작업자의 노력과 헌신의 축적된 결과가 우리 조선업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밑바탕이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처우를 받는 이상한 현실을 하루하루 외면한 결과 사람들은 조선소를 떠나갔다. 이제는 아무리 주문이 많고 경기가 좋아져도 성실하게 현장에서 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 외주 하청의 자리를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해소하려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중국의 오늘은 화려하다. 축적된 노력의 결실이 만개하고 있고, 안에서 꺾꽂이 놓여 있던 저력이 밖으로 분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 자체의 생산 능력만으로도 세계 수요 전체를 감당할 수 있고, 중국내 원가 경쟁력은 정부가 맘 먹은대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무서운 실력의 기반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 중국 안에서 중국의 성공을 확산하고 과잉 투자와 과당 경쟁을 무서워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갈수록 후폭풍은 크고 그 영향은 깊을 것이다. 크고 무서운 이웃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한 잘 알아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오역을 경계해야 한다. 아무리 유능한 장군도 백전백승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승산이 없으면 도망을 가면 가까운 부하들의 목숨은 건질 수 있으니, 지피지기 백전백승은 명심해야 할 격언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뒤엎힌 상념들을 정리하면서, 상대와 자신을 파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걸 해내야만 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절감했다. 우리는 중국을, 또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